

“불법 사교육 막자” 서울교육청, 학원법 위반 61건 행정처분

불법 사교육 184건 중 169건 처리
강남·서초구 지역 신고 70% 달해
시설·교습비·강사 관련 위반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행태로 신고된 184건 중 169건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린 가운데, 신고 접수 지역 70%에 달하는 129건이 강남·서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외를 전수 조사하고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신고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서울 관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184건 중 강남·서초구 지역이 129건으로 70%를 차지했다. 목동이 위치한 강서·양천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강동·송파 8건 ▲서부 7건 ▲중부·동작·관악 각각 6건 순이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경쟁교육과 헤어질 결심'에서 한 학생이 학원 수강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청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1건의 행정처분과 9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교습비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행정처분 61건 중에서는 벌점 부가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행정지도 4건, 교습정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는 9건에 총 1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교육청이 고발을 진행한 경우도 4건 있었다.

행정처분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 및 과외,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ji@metroseoul.co.kr

지역인재 특별전형 확대... 공대 학부 개편



전체 92.6%인 2459명 수시모집

울산대학교는 올해 전체 모집인원 2655명(정원 외 포함) 가운데 92.6%인 2459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으로만 한다.

올해 울산대 수시 전형은 3가지 유형의 12개 전형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전형에서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100%와 수능최저학력기준만을 적용한다. 미술학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대부분 모집단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고교를 입학하고 졸업(예정)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사)만 선발(의예과 별도)하는데, 선발인원을 전년도 321명에서 374명으로 53명 확대했다. 학생부종합 특별전형(의예과 별도)



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를 통해 4배수의 면접대상자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 후 최종 선발한다.

의예과는 논술 전형 및 지역인재(논술)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종합 특별전형, 지역인재 특별전형, 지역인재(기초/차상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에서 5배수를 선발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 반도체학과는 공과대학으로 이전해 나노반도체공학과로 개편됐다. 공과대학 산업경영공학부는 산업경영·산업안전공학부로, 건설환경공학부는 건설환경공학부(건설환경공학/재난·건설안전공학)으로 각각 개편됐다. /이현진 기자

임산부 배려석 개선, 교통약자 하차벨 요구

서울시민, '상상대로 서울'에 제안
센서등 설치 등 임산부 배려석 보완
천천히 내리는 버스 벨 아이디어도

시민들이 임산부 배려석 개선, 버스 내 '천천히 하차벨' 설치 등을 서울시

에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을 보완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김모 씨는 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신청할 때 임산부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카드는 태그시 "임산부입니다"라는 음성을 표출해 버스 내 승객에게 임산부가 승차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김 씨는 "임산부가 탔다는 사실을 승

객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안내 방송이나 간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버티고 앉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몰라서 양보를 못했던 승객에게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임산부석에는 임산부 배지와 연동되는 센서등 설치를 제안했다. 배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주변으로 가면 센서등에 불이 켜지고, 자리에 앉은 뒤 배지를 태그하면 등이 점멸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제안에는 8월 2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30시까지 133명의 시민이 공감

을 표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부산지하철의 '핑크라이트'와 같은 타 지역의 장치 설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

다"며 "라이트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인한 소음·불빛에 대한 민원과 배려를 강요한다는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버스에 교통약자 전용 하차벨을 만들 어달라는 아이디어에는 올 8월 3일부터 이날까지 83명이 공감 표를 던졌고, 비

공감 의사를 밝힌 시민은 없었다. 서대문구 소재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는 "버스에 '천천히 내릴게요(가칭)' 벨이 생기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 어린 아이와 함께 탄 승객, 짐이 많은 승객 등 천천히 내려야 하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혁신기업 찾는 '스타트업 대축제' 열린다

서울시, DDP서 '트라이 에브리싱' 220개 투자사, 스타트업 1500곳 참여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업을 찾는 220개 국내외 투자사와 바이오·핀테크·로봇 등 유망 스타트업 1500곳이 참여한다. 'Start Now, Try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투자, 동행'을 주제로 강연과 포럼, 투자유치(IR) 등 65개의 스타트업 전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 개막식은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축사,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총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전시·체험 버스'도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바이오헬스 체험관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된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890원 결정

주거비, 교육비 등 고려... 3.5% 인상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

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최종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9월 11일 (월)
음력: 7월 27일

수도권 날씨
22~3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06:10 | 해질: 18:47

지역별 날씨:

- 연천 20/29
- 동두천 20/29
- 가평 20/29
- 파주 20/29
- 서울 22/30
- 양평 21/29
- 인천 23/28
- 수원 22/29
- 용인 22/29
- 평택 20/30
- 백령도 20/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모로코지진 사망자 1305명 부상 1832명...국제사회 애도 /사진 뉴시스
▲중국 "2026년 미국서 G20 정상회의 개최 반대"

▲美, 중국 견제하는 '인도·중동·유럽' 인프라 출범키로
▲기후변화협약 8년...세계 각국, 온난화 방지 노력 여전히 미흡



▲뉴멕시코 공공장소 무기소지 금지령...총기단체 고소
▲태풍 '원영' 영향 일본서 3명 사망...가옥 1200여채 침수 /사진 뉴시스